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영농현장과 시가지 등을 살피며 주민안전에 힘쓰고 있다.

폭폭씨는 무더위 주민안전 최선

무주, 무더위쉼터·재난도우미·살수차 등 분야별 TF팀 구성 폭염대비 만전

연일 35도를 웃도는 폭염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이 영농현장과 시가지 등을 살피며 주민안전에 힘쓰고 있다.

지난 23일 공무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선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나 주거·영농환경이 열악한 주민과 지역을 살피고 지원하는데 보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종합대책 TF팀이 구성된 만큼 안전재난과 사회복지, 보건행정, 산업경제, 건설교통, 농업소득, 환경산림 등 각 분야별로 원활하고 유기적인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현재 마을회관 등 68곳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재난도우미와 노인돌봄서비스를 활용해 안부전화와 방문을 실시하는 등 독거노인과 거동불편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전력수급 상황 등을 살피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 무주군은 논·밭과 축사 등 영농현장과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마을방송과 문자·전광판 등을 활용해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공유하는 등 온열질환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하루 10번 살수차를 운행

해 무주읍 주요 도로에 물을 뿌려 지열을 식히고 있으며 앞으로는 무주읍 이면도로와 실천과 안성 지역으로도 살수작업을 확대하고 그늘막 등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청 안전재난과 라동석 재난방재 담당은 "아직까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피해는 없지만 일부 축사와 농장 등 농가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9월말까지는 TF팀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를 하면서 폭염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한여름 폭염피해 최소화 안간힘

장수군 건설공사업체·건설협의회 살수차 지원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장수군에서는 한여름을 알리는 대서(大暑)인 23일 무더위쉼터 운영, 그늘막 설치, 농작물·가축 재해보험 홍보, 독거노인 보호, 온열질환 감시체계운영, 취약사업장 현장행정 등을 통해 폭염으로 피해 발생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관내 시가지들을 중심으로 건설공사업체 및 장수군 건설협의회에서는 살수차량을 동원 시가지 열을 식히기 위해 폭염 대응에 발 벗고 나섰다.

장수군 건설협의회장 조형천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건설협의회가 폭염대응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군에서는 무더위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휴식을 유도하여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잠정 안전재난과장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쉼터를 활용해 충분한 휴식과 수분섭취 등 폭염대응 행동요령 안내 및 실시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장영수 장수군수 직원 소통 간담회



장영수(사진) 장수군수가 열린·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8월말까지 7회에 걸쳐 직원 소통 간담회에 나선다.

실·과·원·소에 근무하는 26개 직렬 239명(7급 이하)을 대상으로 동일·유사 직렬별로 실시하는 이번 간담회는 격식이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군수와의 대화를 통해 직원들이 갖고 있는 고충·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마련하는 자리다.

간담 첫날인 20일에는 '전산·방송통신 분야 인력증원', '소수직렬 관련 처우개선', '동호회 유니폼비 지원' 등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으며,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직원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주민들께도 보다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앞으로도 직원들의 고충·건의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8월 둘째 주부터는 4일만에 걸쳐 7개 읍·면 초도방문을 통해 '대표경로당 방문', '군민과의 대화' 등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은 오는 25일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맞춤형 전문 창업컨설팅 지원

무주군은 오는 25일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수료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컨설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기업별 1:1 전담 컨설턴트를 지원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한다.

예비사회적경제기업 신청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물론, 현장 적응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도 진행해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김영식 일자리 담당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했던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추진 성과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반드시 창업과 기업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사회적 경제 창업 아카데미는 영농조합법인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희망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40명이 참가해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송명성 센터장과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정유진 연구원 등 전문 강사들로부터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관한 강의를 듣고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19일 수료장을 받은 김 모 씨는 "막막한 가운데 창업에 대한 꿈만 키웠었는데 아카데미를 들으며 자신감도 불고 의욕도 생겼다"며 "앞으로 남은 일대 일 전문 컨설팅을 통해 조금 더 현실적으로 부딪힐 생각"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쏘가리 1만1000미 방류

장수군은 수중생태계 보호와 유어 환경 조성을 위해 23일 오전 11시 번암면 원촌마을 앞 요천에서 쏘가리 방류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강살리기 네트워크, 지역주민 등 약 70여명이 참여해 장수군 토종 어종 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민물고기시험장에서 분양받은 쏘가리 1만1,000미를 방류했다.

장수군은 금강과 섬진강의 본류로 금강의 발원지인 뜰봉샘이 위치해 있으며, 매년 자체적으로 토종어종 복원 사업을 위해 다슬기, 뱀장어, 미꾸라지, 쏘가리 등 치어를 구입하여 관내 주요하천에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군관계자는 "생태계 복원을 위한 쏘가리 등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수박 먹고 더위 식히세요"

최상의 품질·높은 당도 진안고원 수박 본격 출하

최상의 품질과 당도를 자랑하는 진안고원 수박이 진안마이산조항공동사업법인(대표 최종진)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하를 시작했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진안고원 수박은 고품질의 큰 일교차와 풍부한 일조량을 바탕으로 아삭아삭함과 11브릭스 이상의 높은 당도로 해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23일 출하를 시작한 진안고원 수박은 철저한 선별을 통해 농협 하나로유통, 롯데마트, 홈플러스, 도매시장 등에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진안군 수박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정도 늘어난 250여ha로 이중 진안마이산조항공동사업법인을 통해 4,100여톤(88ha, 174농가)을 출하할 계획으로 5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지난해 27억원을 들여 선별장 증축과 수박·사과·토마토 선별라인을 구축하고 산지유통센터 연중 가동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통합마케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고원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덕유산 친환경 조리법 경연대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최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야영을 즐기려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야영문화 확산을 위하여 '제6회 야영장 친환경 조리법 경연대회'를 오는 28일 덕유산자연학습장(제7야영장)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대회의 심사기준은 단순히 맛과 모양 뿐 아니라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의 발생량, 남은 음식물의 활용도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연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야영객은 야영장장과 경연대회 일정이 맞는 지 확인 후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063-322-3174)에 신청 가능하며, 참가자는 경연대회에 필요한 집기와 재료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경연대회 수상자(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부상으로 주어지며, 향후 수상 음식 및 레시피는 책자로 만들어져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에 배포하여 모든 야영객들에게 전파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